1,2,3 RUTC 응답 : 237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사62:10-12) 1/1/2020

나라가 망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언약을 주셨다. 백성의 길을 준비하고, 큰 길을 세우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깃발을 들라는 것이다. 1990년 1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한 한마음교회에 행11:19-21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민족을 살리라는 미션을 주셨다. 개인과 교회 현실에 너무 안 맞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지난 23년간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오늘의 다민족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다.
이제 와서 보니 이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많은 것을 주셨다.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셨고, 교회와 현장 속에 중요한 시스템들과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가정과 자녀들마다 축복하셨다.
이제 더 깊이 깨달아보니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요3:16, 딤전2:4, 막16:15-20),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약이었고(마28:18-20), 성도가 누려야 할 모든 응답과 축복의 결론이었다(행1:8).
올해 우리는 "제1,2,3 RUTC의 응답"라는 시간표를 붙잡고, 계속 세가지 사역에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서야 하겠다.

1. 치유사역이다. 내가 치유 받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개인과 교회로 서는 것이다.
본문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더이상 내 상처, 한계, 영적문제에 갇혀 있지 말라"는 말이다.
계속 치유 받으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을 살릴만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의 돌들부터 제하라고 했다. 역시 치유 받으라는 말이다. 다른 길이 없다. 절대 해답, 절대 미션, 절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1) 오직 그리스도, 절대 해답이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바꾸는 일을 계속하라.
각인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일년 이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오래 걸리고 오래된 것들이다.
딱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요19:30).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정도로 옛틀(옛기준, 옛수준, 옛표준) 바꾸어야 한다.

2)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절대 미션이다. 이 비밀 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내 안의 쓴뿌리를 끝내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눅17:21).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도 나를, 내 가정과 자녀들을,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마12:28)
내 인생과 현장에 하늘의 배경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오는 것이다(롬14:17). 2020년에는 갈수록 계속되는 지옥 같은 세상, 천국처럼 사는 비밀 누리기를 바란다.

3) 오직 성령의 능력, 절대 능력이다.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 체질이 되면 된다.
내가 모자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다. 내 힘과 수준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다른 욕심은 다 버리고, 이 거룩한 욕심만 품고 살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다(눅11:13, 요14:12). 이 힘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엡6:10-12), 이 힘으로 사람도 살리고(막9:29), 이 힘으로 헌신도 해서(빌3:3), 참된 써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창41:38)

2. 렘넌트 사역이다. 이제 렘넌트 시대, RUTC 시대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 시간이다.
본문의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6:13에 이 언약을 누릴 주인공들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다.

1) 1세대들은 내 대에 모든 무능과 저주를 끝내고, 우리의 후대들이 백배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언약을 생명 걸고 붙잡고(신6:4-6), 앉으나 서나 언약 전달하라(신6:7-9). 가진 것이 없어 다른 거 못 해주어도 상관없다. 언약만 제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호와이레로 축복하실 것이다(창22;14)
하나님이 중요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언약을 선택하는지,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실 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창26:3, 5, 24)

2) 우리 렘넌트들은 기성세대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내 미션을 찾으라.
내 부모와 어른들이 복음 속에 있고, 기도 배경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겸손히 도울 길을 찾으라.
렘넌트는 인생 경험이 부족한 것 외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어른들을 도우라. 그것이 실제적인 미래 준비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우면서 미래 지도자 준비를 한 것이다(수1:1).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성전에서 심부름 하면서 미래 지도자 준비를 한 것이다(삼상2:18). 다윗도 마찬가지였다(시78:70-72).

3) 우리 어른들은 부족해도 계속 렘넌트들을 격려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21:15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의미가 그것이다(후대를 위한 기도문)

3. 이 두가지 사역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237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다.
깃발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깃발을 드는 정도가 아니다. 깃발을 세우고, 꽂는 것이다.

1) 이미 깃발은 준비되어 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깃발이다.

① 대적과 싸워 이길 때 "여호와닛시"라는 단어를 썼다(출17:15).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말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②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신앙(두려움, 염려)과 분열이다. 가나안 열정탐꾼이 그렇게 실패했다. 올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불신앙이 되고, 두려움과 분열을 만들어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돌 때는 단 한 사람도 불신앙을 말하지 않고, 승리의 언약을 붙잡고 가니 전무한 역사가 벌어진 것이다.

2) 하나님의 축복으로 23년간 다민족 사역과 237나라를 살릴 기본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 깃발을 꽂는 시간이다.

① 3천 제자, 300 지교회, 30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라
지역마다 지역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하나 되라. 구역이 단순한 구역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전도 캠프하는 지교회 사역이 되도록 헌신해보라.

② 군 지교회, 대학 지교회, 치유 지교회, 곳곳마다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라.
혼자서 시작해도 된다(고전3:16). 두 세사람만 모여도 된다(마18:19-20).
교회 안에 작은 일을 해도 그 일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여질 것을 믿고 하라(한국의 행주산성 이야기)

결론-이렇게 237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무슨 축복과 응답을 약속하셨는가?(11-12절)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상급과 보응이 네 앞에 있느니라".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공의 자리로 보내고, 내 부족한 인생이 그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다.
2020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237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